

2024
고2 문학
천재(김)

2024 고2 문학 천재(김) | 4(1)(2) 상춘곡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상춘곡>의 특정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구절에 사용된 어휘, 표현 방법에 대해 묻거나 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선지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으므로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사에서 인용한 표현은 미리 내용을 암기해 두어야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었더
하고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여 잇
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
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
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중략)

긋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
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닉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공명(功名)도 날 쇠우고 부귀(富貴)도 날 쇠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닉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었지하리
- <상춘곡>

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속세에서 문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냄.

㉡: 대구법을 활용하여 봄 정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함.

㉢: 자신과 대상의 상반된 감정이 융화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인생관을 나타냄.

㉣: 무릉도원은 관념적 공간으로 속세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의 무상함을 나타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
하고

㉠ 넛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모름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
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
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
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 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
흔디

㉢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중략)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פת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 공명(功名)도 날 씌우고 부귀(富貴)도 날 씌우
니

㉤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
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헉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 헉리
- <상춘곡>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삶과 옛 사람의 풍류적 삶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색채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갈등을 극복한 후 자연에서 홀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 표현함으로써 세속적 욕망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자연 친화적 태도로 자연과 하나가 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넛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 하건마는

[A]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모름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
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
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
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
럽다

[B]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
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
(寂寂)헌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
일(來日) 하새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
새

곳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
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
오니

[C]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
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논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넛 7의 호자 안
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
니

[D]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펄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씩우고 부귀(富貴)도 날 씩
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엿던 벗이 잇

[E] 스올고

단포누향(簾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하리

- <상춘곡>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산림과 대립되는 시어이다.
- ② ㉡ - 기본형이 '하다'로 현대적 의미는 '많다'는 뜻이다.
- ③ ㉢ - 주체는 자연이다.
- ④ ㉣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 ⑤ ㉤ - 시조의 마지막 행의 율격과 동일하다.

4.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자부심을 드러 내고 있다.
- ② [B]: 계절감이 드러나 있으며, 자연을 창조한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다.
- ③ [C]: 술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 ④ [D]: '연하일휘'는 [E]의 '청풍명월'과 일맥상통 하며, 자연을 빗댄 표현이다.
- ⑤ [E]: 주객전도의 표현이 나타나며, '훗튼 혜음'은 '공명'이 '날 씩우'는 상황을 의미한다.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엿더흔
고
넛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뭇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흔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뭇룰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
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있
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
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
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들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
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
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來
日)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세

㉡갓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넷 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들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

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
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공명(功名)도 날 씩우고 부귀(富貴)도 날 씩우

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하리
- <상춘곡>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동파의 <적벽부> 중 일부를 인용하여 강 호가도의 즐거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알아주는 이는 없으나 한가로움 속에 홀로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자연 안에서 양반의 진정한 풍류와 흥취를 즐기는 모습을 다양한 심상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그려내고 있다.
- ④ ㉣: 화자 자신을 마치 신선처럼 그려내며 치국과 애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청빈한 삶의 모습을 주객전도로 그리고 있으며, 주어진 삶에 대해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신유형

<상춘곡>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과 갈래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상춘곡>의 경우 최초의 정격 가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가사의 갈래적 특성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품의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산에 가면>의 시적 상황 및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었더
흔고

넷사롭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
다

칼로 몰아 냐가 붓으로 그려 냐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
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A]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
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
흔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 답청(踏靑)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
(來日) 헝새

㉣ 아춤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희 조수(釣水)헝새
긋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
단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갓도다 저 띠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돌 었지헝리
- <상춘곡>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속적인 공간과 탈세속적인 자연의 대비가 전제되어 있다.
- ② 특정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지니는 정격 가사이다.
- ③ 계절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경치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은일 가사로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은거하는 선비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 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구비 문학으로 3·4조, 4·4조의 음수율을 통해 율격을 형성한다.

7. 윗글의 글쓰기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감흥이 정점에 이른 '봉두'에서 위정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내야겠어.
- ② 공간적 배치를 통해 자연에 대한 '완상'과 '몰입'의 과정을 보여 줘야겠어.
- ③ '송죽 울울리'는 안분지족하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공간이니까 정적(靜寂)인 공간으로 설정해야겠어.
- ④ '답청, 옥기, 채산, 조수'를 열거하여 자연 친화를 추구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그려야겠어.
- ⑤ 문학적으로 관습화된 표현인 '풍월주인(風月主人), 물아일체(物我一體)' 등을 통해 봄의 흥취를 나타내야겠어.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형적 율격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 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후각의 시각화를 통해 봄의 풍류를 감각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 ④ 탈속적 공간에서 세속적 가치를 생각하며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⑤ 대비되는 공간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민들이 향유했던 최초의 평민 가사이다.
- ② 3(4)·4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음보율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마지막 구절의 형식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여 변격 가사라고 부른다.

- ⑤ 원래는 한자로 표기되었으나, 한글 창제 이후 번역 과정을 거쳐 한글로 표기되었다.

10. [A]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구절을 짚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화자는 청자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② ㉡에서 화자는 오늘은 산책을 하고, 내일은 명리를 잇고 유유자적하고자 한다.
- ③ ㉢에서 아침에는 나물을 캐고, 낮에는 뉘시를 하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④ ㉣에서 맑은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무릉도원을 생각하고 있다.
-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12~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맛볼 것
 간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 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헌던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하새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러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

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 하리

- <상춘곡>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4음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정격 가사이다.
- ②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느껴지는 춘흥(春興)을 다른 생명체에게 감정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어순(語順)의 도치를 통하여 시적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⑤ 주객전도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귀공명을 꺼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3.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고자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사랑 대화방 (5명)

다운: 안녕~ 이번에 가사 작품으로 영상시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많이 나눠보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운 <상춘곡>을 영상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다운: 응, 맞아. 혹시 의견 있어?

두리: 장면이 워낙 많으니까 이야기판을 만들어서 하나씩 끼워 넣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

세진: 좋은 생각이야.

하나: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파일 전송: 이야기판 양식.hwp (15.0KB)

두리: 그럼 내가 이야기판을 만들어 볼게. 지금부터 동영상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의견 많이 내줘.

하나: ㉠배경 음악은 새 소리를 넣어서 경쾌하고 밝은 자연의 소리를 연출하는 게 좋겠지?

세진: ㉡이웃들과 함께 낮에 낚시를 하고 정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두리: ㉠그리고 살구꽃과 복숭아 꽃 이미지도 필요해. 시냇가에서는 강물을 타고 떠내려오는 복숭아 꽃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 주자.

지수: ㉡산 장면에서는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겠네. 구름 낀 산봉우리 아래로는 수많은 집들이 조그맣게 내려다보이도록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운: ㉢그래. 우리 일단 시냇물을 앞에 둔 자그마한 집 사진이 어디에 있을지 정보를 검색해보도록 하자.

두리: 오~ 최고야! 이제 나한테 맡겨 :D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4. 윗글의 정경을 표현하려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가집은 작게 그려서 청빈한 삶을 표현해야겠어.
- ② 꿩꼬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넣어 청각적 이미지도 살려야겠어.
- ③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해 풍류를 즐기는 선비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어.
- ④ 초가집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를 둘러 세속과 단절된 분위기를 그려야겠어.
- ⑤ 복사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을 통해 화사하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야겠어.

1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인간의 가치와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여 속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자연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법은 반어법과 설의법이다.
- ④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봄의 흥취에 젖은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여 드러내고 있다.

16.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설명을 윗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강호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모습을 반영하여 시조와 가사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실천하고, 강호 자연에 은거하여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데 집중하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세속적인 공간과 ㉡탈세속적인 자연이 대비를 이룬 세계가 전제되어 있다.

- ① ㉠은 '산림', ㉡은 '흥진'에 해당한다.
- ② ㉠은 '부귀'가 가능하고, ㉡은 '지락(至樂)'을 알 수 없는 공간이다.
- ③ ㉠은 '수간모옥'의 공간이고, ㉡은 '물아일체'와 어울리는 곳이다.
- ④ ㉠은 '한중진미'를 알 수 있고, ㉡은 '단표누향'이 가능한 공간이다.
- ⑤ ㉠은 '넷사름 풍류'와 거리가 있고, ㉡은 '미음완보'가 가능한 공간이다.

1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반복되는 3음보로 운율을 조성한다.
 ㄴ.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㉕. 비슷한 어조나 반복적인 어구를 짝지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㉖. '봉두'에서 '수간모옥'으로 화자의 시선(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 ㉗. 직유법과 감탄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㉘. 의문형 문장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㉔, ㉕, ㉖
- ② ㉔, ㉕, ㉖
- ③ ㉕, ㉖, ㉘
- ④ ㉔, ㉕, ㉖, ㉘
- ⑤ ㉔, ㉕, ㉖, ㉘, ㉙

18. ㉑~㉙의 구절 풀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자연에 묻혀 사니 속세의 즐거움을 알 길이 없구나.
- ② ㉒: 소리 없이 고요하니 산에서의 일상이 쓸쓸한데.
- ③ ㉓: 농사일은 오늘하고 산책은 내일 하세.
- ④ ㉔: 술술 사이 오솔길에 진달래꽃 부여잡고
- ⑤ ㉕: 옛그제 내린 봄비로 들판이 검은빛이 되었구나.

【19~2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롬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
 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맛룰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㉑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내가 붓으로 그려 내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험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뒹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 허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헌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㉒ 오늘 흐고 욱기(浴沂)란 ㉓ 내일(來日) 허새

아츨에 채산(採山)흐고 나조희 조수(釣水)허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㉔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허야 시냇(溪)의 호자 안자

[A]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로다

㉕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B]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에서 '홍진'이 '속세'를 상징하며, 화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속세에서 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와 '새' 모두 봄의 흥취에 젖어 있다. 따라서 상반된 감정이 융화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의 무릉도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적 공간인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봄 경치의 빼어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속세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을 통해 겨울에서 봄으로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무상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보고 있는 봄 정경을 만들어 낸 조물주의 솜씨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③

㉡을 통해 화자가 자연에서 홀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구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극복했다는 설명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설명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과 옛 사람의 풍류적 삶을 비교함으로써 자연에서 봄 풍경을 즐기는 자신의 풍류가 그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녹양방초'가 '프르'라고 말하며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고 있는 것이므로, 주체와 객체를 뒤바꿔 세속적 욕망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에서 화자는 '청풍명월(자연)'만이 자신의 벗이라고 말하며 설의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물아일

체의 경지에 오른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③

㉡의 주체는 조물주이다.

① ㉠은 '속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자연을 뜻하는 '산림'과 대립되는 시적 공간이다.

② ㉢에 사용된 단어의 기본형은 '하다'로, 현대 국어의 ' 많다'에 대응한다.

④ ㉢은 화자가 느낀 봄의 흥취를 드러내기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⑤ ㉢은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당 가사가 정격 가사임을 보여 준다.

4. [정답] ⑤

[E]에서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고 있는 것이므로, 주객전도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하지만 '훗튼 혜음'은 속세의 욕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공명'이 '날 쇠우'는 상황과 대조된다.

① [A]에서 속세의 세상 사람들이나 옛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풍류가 그에 못지않다는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새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화 행화', '녹양방초'로 형상화된 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를 창조한 '조화신공'을 예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C]에서 '꺾 괴여 닉은 술'을 마시며 봄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의 '연하일휘'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점에서 [E]의 '청풍명월'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정답] ④

㉢에서 화자가 '봉두'에 올라 '천촌만락'을 바라보는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치국과 애민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은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① ㉠의 '풍월주인'은 소동파의 <적벽부>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강호가도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 화자가 '소요음영'을 하는 것을 '한중진미'라고 표현하며 이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만족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화자는 공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자연 안에서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대구가 드러나는 문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공명과 부귀가 화자를 꺼린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화자가 공명과 부귀를 꺼리고 있는 것이므로, 청빈한 삶의 모습을 주객전도로 그림으로써 주어진 삶에 대해 안분지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6. [정답] ⑤

윗글은 4음보의 음보울을 지닌 가사로, 개인이 창작하여 기록한 기록 문학에 해당한다.

① 윗글의 화자가 머물고 있는 '산림'은 탈세속적인 자연을 상징하며, 세속적인 공간인 '홍진'과 대조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윗글의 마지막 행은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당 가사가 정격 가사임을 보여 준다.

③ 윗글은 대구, 의인법, 설의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가 보고 있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예찬하고 있다.

④ 윗글의 화자는 '홍진'을 떠나 '산림'에 머무는 선비로, 작품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은거하는 선비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 가사로 분류할 수 있다.

7. [정답] ①

윗글의 화자가 '봉두'에서 봄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흥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정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내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윗글의 화자는 속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공간적 이동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자연과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 배치를 통해 자연에 대한 '완상'과 '몰입'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윗글의 '송죽 울울리'가 '홍진'과 대조되는 자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안분지족하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정적(靜寂)인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윗글의 화자는 이웃들에게 '답청, 욕기, 채산, 조수'를 하자고 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친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⑤ 윗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풍월주인(風月主人),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관습화된 문학적 표현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봄의 흥취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④

윗글의 화자는 탈속적 공간인 '자연'에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세속적 가치를 생각하며 시상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윗글은 정격 가사로, 4음보의 음보울과 함께 마지막 행이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하다.

②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있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의 화자가 머물고 있는 '산림'은 탈세속적인 자연을 상징하며, 세속적인 공간인 '홍진'과 대조됨으로써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③

윗글은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봄의 정경과 그로부터 느끼는 흥취를 형상화하고 있다.

① 윗글은 양반 사대부가 향유했던 가사로, 최초의 정격 가사로 보기도 한다.

② 윗글은 4음보의 음보울로 구성되어 있다.

④ 윗글은 마지막 구절의 형식이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하여 정격 가사로 분류한다.

⑤ 윗글은 한글로 창작되었다.

10. [정답] ②

[A]는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와 같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 중에서 대구법이 사용된 구절은 ㉠, ㉢이다.

11. 정답 ③

㉢에서 화자는 아침에는 '채산'을 하고 저녁에는 '조수'를 하자고 권하고 있다. 따라서 낮에 낚시를 하고자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화자가 청자인 '홍진(紅塵)에 뭇친 분'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화자는 이웃들에게 '답청'을 오늘 하고, '욕기'를 내일 하자고 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답청'은 '산책'을 의미하며, '욕기'는 내일은 명리를 잇고 유유자적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화자는 '청류(淸流)'에 '도화'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무릉'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화자가 구름 속에 앉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봉두'에 오른 자신의 상황을 과장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2. 정답 ④

윗글에서 어순(語順)을 도치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구절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윗글은 정격 가사로, 4음보의 음수율과 함께 마지막 구절의 형식이 평시조 종장의 음수율인 3·5·4·3과 유사한 형식을 지키고 있다.

② '산림(山林)에 뭇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볼 것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공명(功名)도 날 띄우고 부귀(富貴)도 날 띄우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정답 ②

윗글의 화자가 '나조히 조수(釣水)하새'와 같이 말하며 이웃들에게 '저녁'에 낚시를 하자고 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14. 정답 ③

윗글에서 화자는 홀로 '소요음영'을 하고 있으므로 시를 주고받는 인물들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가 머물고 있는 '수간모옥(數間茅屋)'은 초라한 집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②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⑤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잇고'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15. 정답 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① 윗글에서 속세와 자연이 대조되는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화자가 인간의 가치와 자연의 모습을 대조하여 속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② 화자가 자연 속에서 홀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화자가 '이웃'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것을 고려할 때 화자가 '아무도 살지 않는' 자연에 산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에서 설의법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지만, 반어법이 사용된 구절은 확인할 수 없다.

④ 윗글은 공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6. 정답 ⑤

윗글에서 ㉡에 해당하는 공간은 '홍진'으로 '산림'에서 누리는 '넋사롭 풍류'와 거리가 있다. 반면 ㉢은 '미음완보'가 가능한 '산림'으로, '넋사롭 풍류'에 못

지 않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

- ① 윗글에서 세속적인 공간은 '홍진'으로 탈세속적인 자연은 '산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② ㉠에서 '부귀'가 가능한 것은 맞으나 '지락'을 알 수 없으며, ㉡는 '부귀'는 불가능하지만 '지락(至樂)'을 알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수간모옥', '물아일체'는 모두 ㉢ 속의 삶과 관련이 있다.
- ④ '한중진미'와 '단표누향'은 모두 ㉢ 속의 삶과 관련이 있다.

17. 정답 ④

- ㉠. '공명(功名)도 날 식우고 부귀(富貴)도 날 식우니'를 통해 의인법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잇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를 통해 대구법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산림(山林)에 못쳐 이셔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등을 통해 설의법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윗글은 4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 ㉥. 윗글에서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청유형을 활용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 윗글은 '수간모옥'에서 '봉두'로 화자의 시선(공간)이 이동하고 있다.

18. 정답 ④

- ㉠에 대한 적절한 풀이이다.
- ① ㉠은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와 같이 풀이해야 한다.
- ② ㉡은 '산보하며 읊조리니 산중 생활 적적한데, 한가함 속 참다운 즐거움을 알 이 없이 혼자로다.'와 같이 풀이해야 한다.
- ③ ㉢은 '산책은 오늘하고 욕기(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는 내일 하세.'와 같이 풀이해야 한다.
- ⑤ ㉤은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도다.'와 같이 풀이해야 한다.

19. 정답 ④

- 윗글의 화자는 속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공간적 이동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의 '공명(功名)도 날 식우고 부귀(富貴)도 날 식우니'를 통해 객체를 주체로 전도시켜 표현함으로써 속세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어 잇고 /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③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 마다 교태(嬌態)로다'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⑤ 윗글의 화자는 '수간모옥'에서 '봉두'로 이동하며 각 공간에서 마주하는 봄날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와 자연을 예찬하는 강호가도를 표현하고 있다.

20. 정답 ④

- ㉠이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라는 의미이며 화자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표현은 맞지만, 화자가 많을 건네는 대상인 것은 아니다.
- ① ㉠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하여 봄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은 '맑은 향은 잔에 지고'라는 의미로, 후각을 시각화함으로써 봄바람의 향기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은 '속세를 떠난 이상향'이라는 의미로, <도화원기>에 나오는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봄날의 들판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은 '좁고 지저분한 곳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의미로, 화자는 이를 통해 '훗튼 혜음'을 탐하지 않고 자연에서 살면서 속세에 대한 욕망을 품지 않으려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1. 정답 ②

- 윗글의 화자가 '천촌만락(千村萬落)'을 살기 좋은